국정뉴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문 대통령, "한국과 아세안은 영원한 친구"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과 역내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월 25~26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렸다. 평화를 향한 동맹, 모두를 위한 번영이란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회의는 문재인정부 들어 개최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25일 기조연설에서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국과 아세안은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1989년 한국-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신남방 정책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연기'

日,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정지키로

정부가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시한을 6시간 앞두고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를 결정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으며,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12월 4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이같은 결정에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

우)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72
☎ (070)7122-8057

◆시·도지부 연락처
서울 (02) 849-7871
부산 (051) 808-7960
대구 (053) 621-9880
인천 (032) 868-0113
광주 (062) 672-5004
대전 (042) 242-7601
울산 (052) 276-4400
세종 (044) 865-4522
경기 (031) 235-6166
강원 (033) 254-6670
충북 (043) 253-7770
충남 (041) 881-6045
전북 (063) 252-1797
전남 (062) 654-2340
경북 (054) 973-6312
경남 (055) 282-2332
제주 (064) 751-0191

자유칼럼

자총 설립목적 되새겨 국리민복 가치 실현 앞장서야



전인범 |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전 육군특전사령관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은 '국리민복의 가치 실현'과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자총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과 호응을 촉구하고 남북관계를 미래 지향적인 협력과 공동번영의 관계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에 많은 응원과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자로서의 준비와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기회도 가졌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응원하였으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으로의 전환과 유엔군사령부의 활성화에 대한 의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자유'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 잊어선 안 돼
태극기의 상징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하지만 한국군 스스로의 방어력 증강에 대해 비난은 하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중장거리 유도탄을 발사하는 북한의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금강산 관광지구의 우리 측 시설물 철거 선언 등은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자칫하면 북한의 2020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이럴수록 자총 회원들은 우리의 핵심 가치인 '자유'에 담긴 의미와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바른 가치체계를 갖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시민으로서의 중심을 지키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태극기의 상징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특히 태극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슴으로 각인해 보자.

2020년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관계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성과 없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과거로 후퇴할 수도 있다.

이는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외에도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우리 주변국 간의 역학관계, 그리고 EU, 중동, 동남아시아 등의 변화 역시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자총은 본래의 설립 취지를 다시 새겨 보고 국리민복의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태극기에 담긴 민족정신을 되새겨야 한다. 개개인의 국가관과 애국심을 고양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고취하는 활동에 내 주변부터 공감하도록 앞장서는 한 해가 되도록 미리 다짐해 보도록 하자.